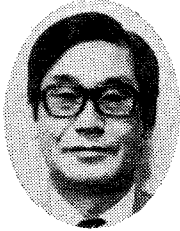


# 經濟發展과 特許



金 鎮 炫

〈東亞日報社 論說委員〉

特許에서부터 말을 꺼내자니 어딘가 어렵고 생경한 맛을 낸다. 「特許」하면 法的이고 行政的인 것 그리고 書類의 창백함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特許가 技術發展의 마지막 包裝作業이요 技術의 實用化, 商業化의 첫 단계라고 알고 나면 펍 마음이 가벼워진다. 인간이 발명, 연구한 결과의 社會的 包裝, 認定의 완성이며 또 이 같은 頭腦作業을 시민, 국민, 인간에게 생활의 개선으로 촉매시켜 주는 출발이며 企業에게 利潤과 經營에서 革新을 창조하는 應用메카니즘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企業의 革新이 활발할 수록 特許라는 사회적 기능은 더욱 커지고 세련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企業의 측면에서 보면 重化學工業化라 함은 여러 의미에서 革新을 요구한다. 資本構造 經營내용에 있어 一大革新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무어니 무어니 해도 가장 크고 중요한 革新은 技術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産業의 生産성과 경쟁력은 사람의 「技能」이 좌우하지만 資本集約的 産業에 있어서는 設備投資의 效率에 있고 그것은 바로 設備機材를 先制하는 技術體系에 달려 있다. 같은 鐵鋼

工業, 같은 原子力發電所라 하더라도 어떤 技術시스템 곧 어떤 特許의 프로세스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建設費用, 生産原價, 運營費用이 크게 달라진다.

한 技術시스템을 적절히 채택했느냐의 여하에 따라 같은 重化學工場이라 하더라도 그 原價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迂廻度와 同種産業 및 國際産業의 原價構成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큰 것이기 때문에 國民經濟全體의 코스트를 좌우하게 마련이다.

또 重化學工業施設財는 耐久年限이 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技術시스템을 채택했을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코스트부담은 그만큼 累積的인 것이다. 반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우리에게 적절한 技術시스템을 수용해서 오는 경제적 이득 역시 누적적인 것이다.

이 점은 지금 우리가 機械工業, 造船 및 運搬機械工業, 電子工業, 鐵鋼工業을 輸出主導型으로 이끄림에 있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重化學工業育成의 논의가 그 建設을 위한 資本調達, 輸出을 중심으로한 內外市場確保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은 크게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14에 계속—

여기서 技術(權利)情報을 基本으로 한 가공분석의 觀點을 列擧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구개발의 密度와 그의 變化
- ② 연구개발의 着手時期
- ③ 製品, 技術의 成長期別 研究開發狀況
- ④ 연구개발의 重點分野(時系列)
- ⑤ 研究開發人口와 그의 변화
- ⑥ 技術者別 擔當製品, 技術의 推移
- ⑦ 企業間의 共同研究開發狀況
- ⑧ 外國企業의 國內進出狀況
- ⑨ 國內企業의 海外進出狀況
- ⑩ 各社 特許의 有効度 測定
- ⑪ 經營實績과 특허와의 關聯性
- ⑫ 新製品의 推定
- ⑬ 新技術의 發見과 評價
- ⑭ 未着手分野의 발견
- ⑮ 프로세스에 있어서 開發空白部の 발견
- ⑯ 技術의 相互關聯波及狀況
- ⑰ 소셜 니드의 抽出整理
- ⑱ 解決하여야 할 問題點의 抽出整理
- ⑲ 先端技術의 用途 抽出整理
- ⑳ 제품베이스의 使用技術材料의 抽出整理

㉑ 代替技術의 採用狀況

㉒ 時間的인 要請에 대한 呼應(에너지, 資源의 節約, 公害防止, 에너지開發 등)

위에 기술한 內容中 ①~⑪項은 동향분석의 目的에, ⑫~㉒는 技術에 對한 目的으로 한 것이 라 하겠다.

## 5 맺는 말

以上 특허정보를 中心으로 한 기업경영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略述하였다. 따라서 이 특허정보의 經營情報化 業務遂行을 위한 體系 즉 特許管理體制의 확립을 위한 組織의 設置運營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一般적으로 각 기업 나름대로의 特殊性과 더불어 여러가지主張되는 實施側의 조직이 提示되고 이다.

筆者의 私見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고려되는 組織은 자기기업 나름대로의 規模를 勘案하여 經營층의 直屬으로 設置, 運營의 妙를 거둔다면 缺陷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時代的인 要請에 呼應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고 汎世界的인 競爭體制隊列에 설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p. 3에서 계속—

궁극적으로는 重化學工業의 생산코스트야말로 이나라 重化學工業化 成長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코스트는 전적으로 어떤 特許 어떤 技術시스템을 수용하고 소화하고 獨自적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세계의 重化學工業技術시스템을 우리가 評價할 줄 알아야 하고 最新·巨大·高度技術의 展望과 方向을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特許制度를 國際的인 次元에서 管理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特許와 技術의 評價와 管理가 앞서고 建設과 生産이 뒤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生産의 발전이 따로 있고 技術의 발전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적어도 重化學工業經濟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生産은 무리하게 늘릴 수 있지만 技術은 무리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오직 꾸준한

投資, 적절한 導入과 자체개발의 調和, 技術評價와 管理能力의 向上만이 技術의 成長을 기할 수 있다.

技術立國이라는 구호가 技術輕視의 傳統的인 思考方式을 脫皮하자는 막연한 方向提示의 것이기에는 사태가 매우 급박하다. 重化學工業이 受容, 消化, 開發해야 하는 技術은 바로 韓國經濟의 死活을 좌우하는 근본이고 이것은 試行錯誤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국민경제적 부담인 것이다.

技術立國—特許의 生活化가 바로 輸出立國, 重化學工業化보다 앞서야 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아주 重大한 時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特許에도 跳躍의 時代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政府, 企業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다.